

# 음악을 법회에 활용하는 혁명 필요

윤소희 동국대 강사,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주장

종교에서 음악은 대중에게 신심을 고취하고 법열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역사 안에서 그들의 음악을 발전시켜왔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음악은 불교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과제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4월 19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는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한 학술적 고찰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윤소희 박사(동국대 예술문화대학원)는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음악들을 법회에 적극 활용하는 문화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윤 박사는 불교 음악의 영역을 제시했다. 윤 박사는 "불교에서 음악은 존재와 비존재의 모든 현상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잔불가의 범주 역시 소리가 없는 무외음(無外音)에서부터 자연의 소리, 일정한 진동 수로 발현하는 음악까지 그 폭이 무한히 넓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할 때 대중이 그것을 함송(Samgati)하면서 생긴 율조가 그 기원인 불교음악은 한국불교 안에서도 초기 범패는 대중의 함송에서 비롯됐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팔관회를 통해 다양한 악기가 활용되는 불교음악이 만들어졌고, 근여스님은 보현심원가를 만들기도 했다. 조선 초에는 궁중을 통해 불교음악의 명맥이 이어졌으나, 임진왜란 이후 불교 음악은 민간으로 파고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산회상'은 민간의 풍류 음악으로, '처용무'는 오방작법무로 변했다는 게 윤 박사의 설명이다.

윤 박사는 "비승비속(非僧非俗)의 불교 연예단들은 사찰과 대중을 연결시키며 민중의 삶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지녔고, 존재 양태도 다양했다"며 "민간에 숨어들은 불교 악가무를 현대적으로 복원하고 공연한다면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중들 함송이 불교음악의 기원**  
**역사속 불교악가무 복원·개발을**  
**의례 시 다양한 범주 이용해야**  
**젊은 층 위한 새로운 시도 중요**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기록한 <악학궤범>, <대악후보>등에도 불교음악 가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복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사찰의 의례나 행사에서 범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대승불교권에서는 조석예불을 봉행하면서도 목탁, 협자, 불령, 당자, 영고 등으로 박자를 넣으며 의식을 봉행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한국불교의 범구 활용은 매우 빈



조선시대 민간 풍경을 표현한 민화. 고깔쓰고 재를 올리는 승려와 사당패 모습에서 불교음악이 왕실과 민간,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다.



윤소희 동국대 강사

약하다. 이는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산중에서 의례를 진행하면서 축소된 것"이라며 "예불과 연중 행사에서 다양한 범구를 활용한다면 신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음악으로서 활용,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과의 소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윤 박사는 주장했다. 문화재 음악이라는 박제된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원형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탐돌이, 회심곡, 조선 말 비승비속 유랑인들의 불교음악을 현대적으로 재창

조하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양 퓨전의 흐름에 맞춰 한국의 열풍과 다양한 음향적 소재에 대한 음악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청년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음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컬그룹 '야소다라', 불자기수 강혜윤, 찬불동요단체 '좋은 벗 풍경소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윤 박사의 지적이다. 윤 박사는 "불교 음악인을 위한 무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찰들은 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 음악인들도 전통을 자신들의 음악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 한국불교사,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한국불교사, 오는 6월 2일 집중세미나

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6월 2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1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부터 우정상의 <한국불교사(1969)>, 김영태의 <한국불교사(1994)>까지 종래의 통사류에 나타난 사관과 주제, 쟁점들에 대해 집

중 검토하며, 새로운 불교사 기술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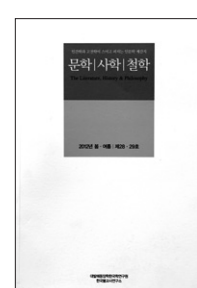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의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 김용태 동국대 HK 교수의 '한국불교사 기술의 주제와 쟁점' 등이 발표되며, 최연식 목포대 사학과 교수, 조명제 신라대 사학과 교수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석한다.

신종일 기자

## 불교 인문계간지 '문·사·철'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공동편집주간 권오민, 고영섭)이 인문학 계간지인 '문학/사학/철학' 분·여름호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영어로 읽는 한국시(고창수) △일본어로 읽는 일역시(고정애) △한국어로 읽는 중국시(이정교) △선시감상(고완수) △근대화 과정 속 전쟁미망인의 존재양상과 역할 변화(정연정) △중국역사상 최초로 정권을 잡은 여성-전한의 여후(구성희) △탄탄선사 유물회통론의 '탄(吞)적 기풍' 연구(문광) △스마트폰, 똑똑하기보



다 현명해지기(혜윤) △강소연의 미술사기행12-석굴암(강소연) △불교미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일고(함현준) △산동기행문: 살아있는 유학과의 만남(안승우) △우리가 대만불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김영목) △대만 불교, 더 넓은 세계와의 만남(박연례) 등 글이 실려 있다.

신종일 기자



표훈사 청허 휴정선사비. 조선 중기 한문학 대가인 이정구가 썼다. 6.25동란 당시 소실돼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 '태고법통설'은 정치적 수사의 반영

서울대 김성은, '조선 후기 선불교 정체성 연구'서 밝혀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경 정립된 '법통설'이 순수한 종교적 주장보다는 정치적 수사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종교학과 김성은 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조선 후기 선불교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연구-17세기 고승비문을 중심으로'에서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씨는 먼저 시대적 상황에 주목했다. 고려 시대에는 왕사와 국사의 전통에 의지해 교단의 정체성을 세웠지만, '송유 역불'의 조선시대에는 전통 선불교의 전통설에 입각한 법통담론을 활용하게 됐다. 근본적인 선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사회의 정치적 담론의 영향이 크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17세기 불교가 내세운 태고법통설은 계보주의와 전통적인 화이론

(華夷論)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당시 불교교단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의 사고방식에 맞춰 자기 묘사를 전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씨는 당시 고승들의 비문을 예로 들었다. 실제 여말 선초에는

**임란 이후 고승비문 제작 증가**  
**대부분 유학자 상찬 통해 제작**  
**선불교 법통 정치담론 속 성장**

미진하던 고승비 건립은 17세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활약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찾게 된 조선불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핵심 도구로 고승비 건립을 적극 활용했다는 증거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비문은 단순히 과거의 스승을 회상하기 위한 기념물이 아닌 당시 제자들과 교단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의 주요 수단이었다"며 "이는 계보주의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17세기 불교교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런 고승들의 비문들이 대부분 유학자들의 상찬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 씨는 주목했다. 유학자들에 의해 정치사회적 권위가 독점되다시피 하던 조선시대에 작성한 그들의 고승비문은 불교교단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유학자들의 비문 건립 참여는 교단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그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정시점에서 선불교의 정체성은 조선시대 정치사회담론과 유학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됐다"고 역설했다.

신종일 기자

## 동국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본교 · 경주캠 포함 42억 2천만원 수주

2008년부터 4년 연속 쾌거

전태종립 금강대학교에 이어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돼 불교 종합대학의 교육사업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2일 발표한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선정돼 서울캠퍼스가 23억 1천만원을 경주캠퍼스가 19억 1천3천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특히 본교와 경주캠퍼스의 종합 수주액이 42억 2천3백만원으로, 전국 대학 중 최대 규모다.

대학본부는 이번에 지원금을 △

장학금과 취업 지원 △리더십개발 △교수학습역량 혁신 △글로벌교육역량강화 △교육인프라 구축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는 "교육역량강화 지원금은 대학별로 수립한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대학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동국대는 2009년 13억원, 2010년 13억7천만 원, 2011년 54억 1천만원 등 4년 연속 선정됐다.

신종일 기자

# 古佛叢林 白羊寺 方丈 推戴文

무릇 圓覺의 道는 一眞法界로서 理智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니, 空劫 이전에 隱隱하여 볼 수 없고 日用의 사이에 昭昭하나 잡을 수 없어서 참으로 玄妙합니다. 다만 이 靈明의 소식은 크게는 법계에 싸고 작게는 鄰虛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十方如來의 머무는 淨土요 일체중생이 모두 갖추바 本性입니다.

일찍이 西翁 大宗師께서는 佛祖의 正法眼藏을 曼庵 大宗師로부터 전수받아 고불총림 백양사 대중을 調御하여 왔습니다.

1996년 西翁 大宗師께서는 首座 廣제자옹선사를 부방장의 소임을 맡기시고 禪의 眞髓를 지도하셨습니다. 1997년 대중사께서는 스승이신 만암 선사로부터 咐囑 받으신 正法眼藏을 廣제자옹선사에게 咐囑하셨습니다.

대개 스승의 지위에 있어서 총채자루를 잡는 이는 이것을 두고 달리 宗風을 辨驗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뛰어난 이가 있어서 그 本源에 투철하면 어떤 갈등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니 西翁 大宗師께서 남기신바 臨濟의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다.

이에 古佛叢林 18教區 白羊寺 元老들은 西翁 大宗師의 뜻에 따라 廣제자옹선사를 古佛叢林 白羊寺 方丈으로 추대하니, 叢林大衆은 廣제자옹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佛祖의 慧命을 잇고 널리 중생제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6년 4월 10일

古佛叢林 18教區 白羊寺 元老會議長 如山 岩度